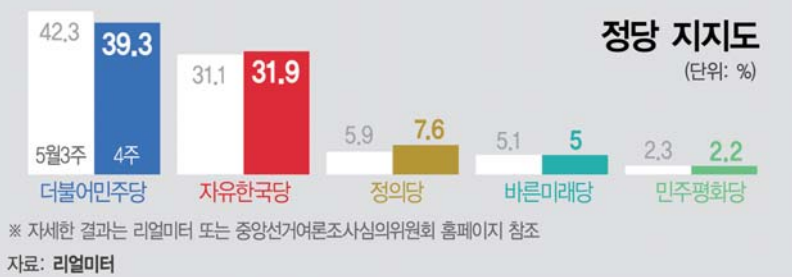


文대통령 지지율, 13주 만에 50% 회복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5월20~24일, 전국 성인 2,520명/ 6.9%의 응답률
표집오차 ±2.0%p(95%신뢰수준)/ 의뢰기관:YTN 주간 집계 (단위: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째 상승해 50%를 회복했다.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이슈와 최근 민생·경제 행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실시한 5월 4주차 주간 집계(5월20~24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7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대

비 0.6%p 오른 50.0%(매우 잘함 27.9%, 잘하는 편 22.1%)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월 3주차 조사(51.0%) 이후 13주 만에 50% 대를 넘어섰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0.4%p 낮아진 45.6%(매우 잘못함 31.4%, 잘못한 편 14.2%)를 나타냈다. 긍정 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5월3주차

경제 행보·盧추도식...긍정, 0.6%p↑ 50.0%

부정, 0.4%p 내린 45.6%...공·부정 격차 확대

조사에서 3.4%p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 때는 오차범위(±2.0%p) 밖인 4.4%p로 벌어졌다.

세부 계층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41.6%→46.9%, 부정평가 50.6%) ▲서울(47.6%→48.9%, 부정평가 45.9%) ▲50대(45.1%→50.2%, 부정평가 47.3%) ▲20대(48.8%→52.8%, 부정평가 40.4%) ▲학생(42.7%→47.6%, 부정평가 43.1%) ▲사무직(60.5%→64.6%, 부정평가 33.0%) ▲노동직(47.7%→51.7%, 부정평가 45.2%) ▲지역업(40.5%→41.7%, 부정평가 54.8%) ▲무직(41.6%→42.6%, 부정평가 53.0%) ▲보수층(22.1%→24.7%, 부정평가 71.6%)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광주·전라(74.6%→68.1%, 부정평가 30.7%) ▲대전·세종·충청(50.4%→47.4%, 부정평가 47.5%) ▲60대 이상(37.7%→35.3%, 부정평가 57.2%) ▲30대(59.2%→67.0%, 부정평가 40.8%) ▲가정주부(44.5%→48.5%, 부정평가 55.4%) ▲진보층(78.8%→77.4%, 부정평가 19.5%) 등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일간 지지율은 최저임금 논란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관련 보도가 집중됐던 지난 21일에는 49.9%로 떨어졌지만

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22일에는 50.0%로 반등했다. 또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에는 50.4%, 24일에는 50.3%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말 이후 문 대통령의 민생·경제 행보 상시화가 국정 지지도가 호전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성과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 역시 이전과 달리 적극성을 띄고 그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 등은 일시적 긍정 요인으로 봐야 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철폐 부쟁,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등은 진보층 이원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유권자 3만677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20명이 응답을 완료해 6.9%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 강당에서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민생 투쟁 대장정 마무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교안, 국회 등원 거부 '식물국회' 장기화되나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로 당장 회군(回軍)하는 대신 '정책투쟁'으로 투쟁의 불씨를 계속 살려 나가기로 해 당년간 강공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27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정책 대진환을 이루겠다고 2020 경제대진환 프로젝트를 내놨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좌파경제 폭정에 맞서 새로운 시장경제를 열어가는 데 있다”는 게 황 대표의 설명이다. 실질적인 피세면지 저감대책 추진, 4대강 보 파괴 저지, 신항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탈원전을 막아내는 제도 등도 황 대표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원내에서 정책 수립, 입법활동을 통한 정책 투쟁을 선언했지만, 국회 복귀 시점은 못 박지 않아 황 대표가 장외투쟁을 접었다기보다 사실상 '원외'에서 투쟁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 대표는 “국회가 이렇게 열리지 못한 것은 누구 책임인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책임 아니냐. 우리를 국회로 못 들어가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며 “국회가 국회답지 못하고 민주적이지 못한 방식이 계속된다고 하면 들어가는 어렵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를 운영 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이당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철폐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한다면 저희는 국회로 들어가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 행기는 일을 보다 가열차게 해나갈 것”이라며 “1대 1로 만나 제가 직접 겪은 민생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단회회담을 거듭 제안했다.

이는 패스트트랙 철폐 및 단회

회담을 전제로 한 국회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이지만, 당 내 온건파의 장외투쟁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의도가 없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추경안을 통과시키려 한 당초 계획이 황 대표의 장외투쟁으로 어그러진 상황에서 한국당의 국회 등원을 더 이상 재촉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 내부의 기류도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여당이 계획했던 추경안 통과 시점이 데드라인을 넘기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조급증을 버리고 여유를 갖게 돼 국회 파행이 더 장기화 수도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민주당은 추경안 통과를 위한 국무회의의 국회 본회의의 연설 시점을 27일로 잡고 한국당에 조건 없는 등원을 촉구했지만, 당장 5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능해지자 강공도 드로 돌변했다.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은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년간 ‘강 대 강’ 대치국면을 더 오래 끌 것으로 예상된다.

당 안팎에서는 제1야당이 ‘투쟁’에만 매몰될 경우 총선 준비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 우려도 쏟아지고 있지만 황 대표는 오히려 민주당의 총선 준비를 폄하했다.

그는 “대표가 된 뒤에 곧바로 보낼 선거가 있었다. 그 뒤에 패스트트랙 투쟁이 이어졌고 민생 대장정을 했다”며 “하하하 사심은 총선 준비다. 총선 준비의 측면이 같아 있다. 우리가 역량을 모으는 것. 역량을 키워가는 것.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 국민들 목소리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넓게 말하면 총선 준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학규 “퇴진은 없다...제3의 길 열어 총선 승리”

오 원내대표에 “갈라서지는 말 함부로 할 수 없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7일 당내 혁신위원회 구성 논란과 관련,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퇴진이나 2선 후퇴는 없다”며 “한국 정치의 유래가 없었던 제3의 길을 바른미래당이 반드시 지켜내 미흡내 뜻을 피우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의 퇴진을 전제로한 혁신위 구성은 애초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신환 원내대표를 직접 지목하면서 “손 대표가 퇴진하지 않는 이상 혁신위는 품수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갈라지는 게 맞다고 한 토로가 사실이라면 크게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우리는 화합과 자강을 추구하고 있는데 갈라서지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치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손 대표는 또 “민주평화당과 합당이나 탈당, 분당 후 합류도 전혀 없다”며 “비참가지로 자유한국당과 합류해 기호 2번을 달고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이런 말도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당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3의 길을 걷는다. 중간지대가 크게 열리고 있다. 여기를 잡아야 한다”며 “개혁보수, 합리적 진보를 이루는 중도개혁 세력을 바른미래당이 중심을 잡고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혁신위원장 영입과 관련하여 “미래를 열어가고 당 화합을 이끌 중립적 인사가 돼야 한다”며 “어수선한 당 분위기가 정리되고 모든 것이 하루빨리 총선 준비 체제가 되어 우리가 해야 할 과제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손 대표는 “기권권 양방체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데 바른미래당이 하루빨리 분란을 수습해 새로운 길을 열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9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거부하고, 스스로 산통을 이겨내고 정치개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며 “바른미래당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제3의 길을 지켜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